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7월 20일(월)-22일(수) 클레베 청소년수양관

3차 준비모임: 7월 18일(토) Teestube

• 빛나라 모임: 7월 1일(수) 14시 강판연 님 가정

• 귀가: 신일수, 송인선, 손교훈-김성희

• 생일축하: 김혜경, 이아정

• 담임목사: 뉘른베르크-에어랑엔 한인교회 유송민 목사 취임식 집례(7월 4일)

◆말씀일기 일정

일/고전15:5-58 월/고전16:1-12 화/고전16:13-24 수/시편1:1-6
목/시2:1-12 금/시3:1-8 토/시4:1-8 일/시5:1-12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79독

◆ 예배위원 안내 ◆

	6월 28일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
예배기도	정보현	김수경	한정우	임나원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유근임 김혜경	나지홍 최성호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에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깨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6장	다	함	깨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깨
성서교독/Wechselwort	교독문 73번	다	함	깨
찬송/Gemeindelied	328장	다	함	깨
기도/Gebet		정	보	현 집사
찬양/Chor	친구 되신 예수 구세주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고전 15:50-58	인	도	자
설교/Predigt	변화되리라	손	교	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485장	다	함	깨
봉헌/Kollekte.....		다	함	깨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깨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깨
※축도/Segen		손	교	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고전15:35-49 '부활 신앙 생활'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19-20).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31).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36),
“씨를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42)리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3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58).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보다 더 죽음 같은 삶을 이겨낸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 신앙은 육신이 죽고 다시 사는 일이기도 하지만, 죽음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생활이다.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은 부활 신앙 생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분과 함께 다시 살았기에, 사나 죽으나 그 분의 것임을 알기에, 삶도 죽음도 그 무엇도 산 고백이 되고, 산 소망이 된다.

▶ 지난 주 봉헌 내역(6월 21일-6월 27일) ◀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정기승, 권순아, 김평님	윤영숙, 김영수, 양순이	신형만, 백능현	한상철(장학)
총액 1.279,40유로 = 879,40 (예배당) + 400,00 (온라인)			